

여름철 발생하는 질병과 대처방안

- 인후두마비증 무리한 지혈대 사용 원인, 하절기 사료변질 주의해야 -

6월은 년중 최고의 절각시기이며 또한 분만의 달이다. 절각을 하다보면 사소한 준비 부족으로 당황하기도 하며 분만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안타까움으로 인해 목구멍으로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절각후유증의 하나인 인후두마비증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6월중 필자에게 의뢰된 인후두마비증의 13두 중 4두만이 완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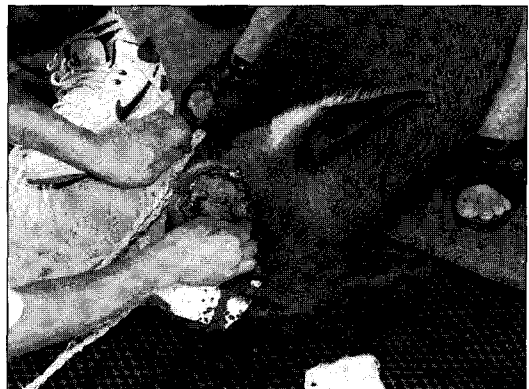
◇ 인후두마비증이란

인후두마비증은 녹용 절단시 부적절한 지혈대 사용이 주원인으로 녹용 절단 후 절단부위의 요염이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후두마비증은 주로 녹용생산이 우수한 사슴에서 다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녹용 절단면적이 큰데서 오는 지혈의 어려움에서 유래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5월말 이후에 녹용을 절단하는 경우 지혈을 하기 위해 동여맨 지혈대는 아무리 길어도 12시간 이상 매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혈대를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이

장이 필수적이다. 녹용 절단 후 지혈이 제대로 안된 경우 무리하게 지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례이다.(사슴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나 필자는 본고에서 확실히 밝힌다. '소량의 출혈은 그대로 방치해도 전혀 해롭거나 위험성이 없다고...' 물론 지혈이 제대로 이뤄져 출혈이 없으면 금상첨화지만 아끼는 사슴이 출혈이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리하게 지혈대를 동여매면 지혈대를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사슴사육 농가들은 유념해야 한다.



▲ 무리하게 지혈대를 동여 댈 경우 인후두마비증의 위험에 노출된다.

인후두마비증의 원인은 녹용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측 동맥이 지혈대에 의해 갑자기 혈행을 중단하게 되어 그 동맥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눈을 움직이는 동안신경, 얼굴을 지배하는 안면신경, 그리고 숨을 쉬고 먹이를 먹을 때 관련되는 인후두 부위와 분지되는 하악신경 -이들을 모두 합쳐 수의학에서는 삼차신경이라 함- 이 압박되고 그에 따른 기능상실에 의해 삼차신경이 상해를 입는데서 비롯된다. 삼차신경의 상해는 지혈대가 늦게 풀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인후두마비증은 대부분 녹용 절단 후 7-15일 사이에 발생되며 처음에는 운동기피에서 식욕부진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로부터 2-3일 후에는 풀이나 조사료는 조금씩 먹는데 자세를 관찰해 보면 눈알의 움직임이 원활치 못함을 관찰해 낼 수 있다. 즉 눈알이 움직이지 못하여 마치 눈을 흘기는 것처럼 흰자위가 드러난다. 이때쯤에는 각좌 부위에 상처가 확연히 드러나며 때로는 구더기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된다.

이때부터 자세를 관찰해보면 입으로부터 맑은 침을 흘리게 되며 특히 풀이나 조사료를 잘 삼키지 못하여 입으로 풀을 한두개 물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목부위가 마비되기 시작하여 목을 쳐드는 경향이 있고 목을 길게 뻗히기 시작한다. 그로 말미암아 코너에서 방향 전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목을 숙이기가 어려워져 사료를 먹지 못하게 된다. 이어서 앞다리 또는 뒷다리가 뻗뻗해져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호흡이 빨

라지게 되며 입이나 코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에서는 백색의 눈곱같은 것이 보인다.

이쯤되면 지혈대를 매었던 각좌 부위에 괴사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있으며 파리나 모기가 달려들어도 쫓지 못하게 된다.

◇인후두마비증의 치료와 예후

인후두마비증의 치료는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료효과가 양호하다. 눈동자만 마비된 상태까지도 희망적이다. 그러나 목까지 마비되면 예후는 급격히 불량해진다. 여기에서 전지(앞다리)나 후지마비가 되면 생존가능성은 20%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혈대가 늦게 풀려 각좌에 상처가 난 사슴은 즉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인후두마비증의 치료시 우선 사슴이 흥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한 흥분은 죽음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를 위한 사슴의 보정은 크러쉬(보정기)가 최상이며 부득이 마취를 할 때는 마취량을 대폭 줄여서 사용하고 항상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치료약재로는 대량의 수액(흔히 링겔이라 함), 대량의 항생물질(지속성 페니실린 또는 테라마이신)과 해열제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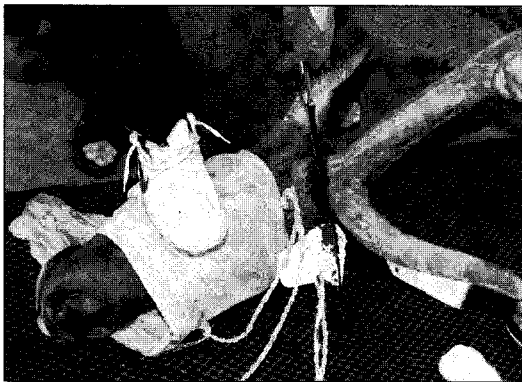
인후두마비증을 치료할 때 수의사는 사슴 주인과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슴인 경우 단호하게 도태를 권유하고 꼭 살려보고 싶은

욕망에서 주인이 치료를 요구할 때는 항생제의 사용에 유의하여 중탕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후두마비증의 예후는 초기에 치료하면 양호하다. 목의 마비가 오면 50%, 눈, 목, 다리에 마비가 오면 생존가능성은 15% 미만이다.

◇ 인후두마비증의 예방

인후두마비증의 예방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리한 지혈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웬만큼 출혈하는 것은 사슴을 안정시키도록 해 주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니 거의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녹용 절각 후의 출혈은 여기서 피가 뿌려져 보기가 흉해서 그렇지 출혈 자체로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사슴진료 경험에서 터득한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인후두마비증이 없기를 기대하며 부언하고 싶은 말은 인후두마비증을 혹자는 파상풍이라고 하는 이가 있다.



▲ 인후두마비증은 통상 절각후 10일 전후에 발생된다.

그러나 인후두마비증과 파상풍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 인후두마비증은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하나 파상풍은 초기에 치료한다해도 100%에 가까운 폐사를 유발한다.

파상풍은 상처 발생 후 3-5일 사이에 발생되나 인후두마비증은 절각 후 통상 10일 전후에 발생된다. 인후두마비증은 절각 후유증이요, 무리한 지혈대 사용이 원인이며 초기치료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 7월의 사슴질병과 대책

7월의 사슴관리와 녹용판매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약간은 고전을 하게 된다. 잦은 비와 높은 습기, 그리고 강렬한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사료의 변질이 쉽고 그에 따른 소화기 질병이 잦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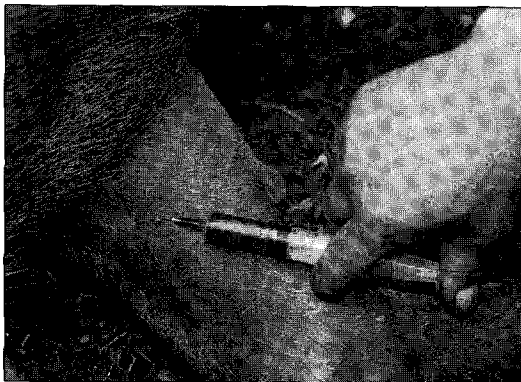
사슴에게 제공되는 사료는 사료위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곰팡이는 사료의 변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뿐 아니라 때로는 사슴에게 치명적인 신장수상증(Rennal okalosis)을 일으키기도 한다. 아무리 아깝더라도 변질된 사료는 먹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곰팡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합사료는 소량씩 자주 구입하고 건초는 습기로부터 잘 관리되어야 한다.

목장 주위에서 채취되는 풀사료는 하루정도 음지에서 말려서 먹이도록 한다. 사슴은 소와 달리 제 3위의 용적이 작으므로 반추동물이지만 다즙성의 먹이에 잘 적응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소화기

장애가 발생되면 우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원인 제거에 힘써야 하며 우선 건위제와 소화제를 먹이거나 주사해주고 먹이 급여량을 줄이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별도 사육함이 요망된다.

제 1위와 2위에 과도하게 가스가 차는 것을 고창증이라 하는데 단순히 가스가 찬 것은 안정과 제효제(상품명 : 가스봉, 가스마인) 등을 먹이고 소화촉진제(상품명 : 제스통 또는 이도제나빌) 등을 주사하거나 고농도 포도당(21% 포도당)을 정맥 주사해주고 강심제를 주사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스와 거품(포말)이 함께 발생하는 것을 포말성 고창증이라 하는데 이때는 전문수의사의 진료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포말성 고창증의 증상은 토하거나 좌우측 복부가 심하게 부풀어오르며 심한 고통을 수반하므로 신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포말성 고창증이 밤 사이에 발생되면 급사되기도 하며 때로는 기립불능의 상태가 되기도 한다.



▲ 고창증 발생시 제효제를 먹이고 소화촉진제를 주사하면 효과적이다.

◇ 자육의 설사와 대책

신생자육은 면역력이 매우 약한 상태인데 장마로 인하여 사육환경이 열악해지면 설사의 발생을 촉진하게 된다. 설사의 원인은 허약, 배꼽의 감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감염, 과도한 기생충 감염, 어미사슴의 유방염이 대부분이다. 자육설사의 그 밖의 원인으로 는 진드기, 흡혈파리, 모기 등에 심하게 노출되어 빈혈에 의한 것일 때도 있음을 볼 때 하절기에는 적절한 방역도 필수적이다.

◇ 발굽, 포피 및 피부질환의 대책

마음 같아서는 숫사슴의 경우 녹용 절각 때 발굽도 손질하고 포피염(또는 암모니아 번)도 치료하고 탈모가 되거나 탈모 후 까맣게 변색되는 피부도 치료해 줬으면 좋겠지만 녹용 절단 때는 경험도 없고해서, 또는 마취시간이 짧아서, 아니면 마취사고 발생의 우려감으로 인해 발굽, 포피, 피부의 치료는 종종 뒤로 미루는 수가 있다.

7-8월은 배수불량으로 인해 발굽이 불령해져 다치기도 쉬워 가을철 발정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발굽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을철에는 숫사슴이 난폭해지고 많은 경우 발굽 질환이 악화된 후에야 발견되므로 치료가 힘들기 마련인데 7-8월에 서늘한 시간대에 발굽을 손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육의 설사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 어미사슴의 젖을 다른 자육이 먹어 그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사슴은 빈젖만 빨게 되어 발생



▲ 7~8월은 배수불량으로 발굽이 물렁해서 다치기 쉽다.

하는 기아에 의한 빈혈의 발생으로 인한 설사, 세균 감염 등 그 원인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설사의 원인을 찾아내어 대응책을 써야한다.

설사를 하게되면 새끼사슴의 성장이 저조하고 피모상태가 불량하게 됨은 물론 어미의 과도한 항문 활기에 의해 항문 주변부에 심한 염증과 괴양이 발생되하게 된다. 이때는 항문 주변부를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동시에 항생제와 지사제를 투약하면서 어미가 새끼의 항문을 활지 못하도록 옷을 입혀주거나 젖을 먹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미와 격리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가 발생된 새끼 사슴은 건조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별도 사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심한 설사일 경우 수액(예:생리식염수, 하트만)을 정맥 주사해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도한 발

굽깎기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포피에 발생된 염증과 피부질환도 가을이 오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최상임은 기억해두자.

발굽손질 포피치료시에는 언제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 늦게 분만된 자육과 모육 관리

늦게 분만된 자육은 여러 가지로 먼저 분만된 자육이나 정상시기에 분만된 자육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자라게 된다. 특히 먼저 태어난 자육들은 늦게 분만한 어미사슴의 젖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막무가내로 늦게 분만한 어미의 젖을 빨아먹게 된다.

늦게 분만한 어미사슴도 처음에는 젖을 다른 새끼 사슴에게는 안주려 하지만 종과부적 이어서 마침내는 포기하고 만다. 그러다보니 늦게 태어난 자육은 먼저 태어난 형과 누나에게 젖을 빼앗겨 빨아먹을 젖이 없게 된다. 이렇게 하여 늦게 태어난 새끼사슴은 빈젖만 빨거나 모유량이 적게 되어 허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6월말 이후에 태어난 새끼사슴은 별도의 우리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한편 늦게 분만된 어미사슴은 다음해에도 역시 늦게 분만되기 일수이므로 만족스러운 영양을 제공하고 분만 70일이 되면 과감히 이유를 해야 한다. 물론 새끼 사슴에게도 질 좋은 사료와 영양제를 공급하여 성장을 촉진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국양육**

〈필자 연락처 : 011-423-5297〉